

## 건봉사 제2차 萬日念佛會 재검토

이종수  
동국대학교

1. 머리말
2. 발징화상 설화와 만일회의 개설 동기
3. 三門修學과 만일회의 불교사적 배경
4. 만일회의 주도자와 시기 再批正
5. 맺음말

## 요약문

乾鳳寺 萬日念佛會는 19세기 염불신앙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언급되어 왔다. 삼국시대 發微和尚의 제1차 만일회를 계승하여 19세기에만 만일회를 세 번이나 開設하였기 때문이다. 연구자들은 건봉사 제2차 만일회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서 작자와 작성연대 미상의 「新創萬日會事蹟日記」와 1822년에 醇溪居士가 작성한 「萬日院重修記」의 기록에 의거하여 건봉사 만일회의 주도자를 碩鬚으로 지목하고 만일회 개설 시기를 1802년으로 비정해왔다. 그런데 필자가 근래에 1863년에 鄭允容이 쓴 「日本漂海錄序文」에서 건봉사 만일회와 관련된 기록을 발견하였는데, 그 내용이 기존의 설과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일본표해록서문」의 내용에 의거하면, 만일회의 주도자는 福仁이고 개설시기도 1801년 8~10월 경이다.

그리고 그 동안의 연구자들은 건봉사 제2차 만일회가 성립된 직접적인 동기로서 순조의 만수무강 기원을 언급해왔을 뿐 불교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를 하지 못했다. 본 논문에서는 건봉사

제2차 만일회의 불교사적 배경으로, 徑截門·圓頓門·念佛門의 三門修學에 대해 언급하였다. 삼문수학은 淸虛休靜과 鞭羊彦機에 의해 제창되어 18세기에는 전국적으로 정착되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삼문수학 가운데 염불문이 전국적으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건봉사 만일회가 성립되었다고 본 것이다.

## 주제어

건봉사, 만일염불회, 발징화상, 三門修學, 『日本漂海錄』

## 1. 머리말

乾鳳寺는 신라시대에 아도화상이 창건하여 圓覺寺라고 이름 하였던 것을 후대에 도선국사가 절의 서쪽에 봉황새 모양의 돌이 있기 때문에 西鳳寺라고 개칭하였는데, 다시 나옹화상이 서쪽을 의미하는 ‘乾’자를 써서 ‘乾鳳寺’로 이름을 고쳤다고 한다.<sup>1)</sup> 금강산 남쪽에 위치하는 이 절은 조선후기에 萬日念佛會로 유명해진 곳이다.

만일염불회란 출가자와 재가자를 가리지 않고 萬日을 기약하여 염불을 하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수행법이다. 이 ‘만일염불회’는 ‘만일회’라고 줄여 불리기도 하는데, 염불계의 이칭으로도 사용되었다. 만일회가 염불계의 이칭으로 사

1) 건봉사 사적을 정리한 것으로는 1928년에李大蓮과 韓龍雲이 寺内の 여러 기록들을 검토하여 연대별로 정리한 『乾鳳寺及乾鳳寺本末事蹟』이 있다. 그리고 1977년에 韓國學文獻研究所가 건봉사의 古記録을 발굴하여 『乾鳳寺及乾鳳寺本末事蹟』과 함께 수록한 『乾鳳寺本末事蹟』(亞細亞文化史 간행)이 있다. 본고에서는 아세아문화사에서 간행한 『乾鳳寺本末事蹟』을 참고하였다.

용된 것은 契와 會의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sup>2)</sup> 건봉사 만일회는 19세기에만 3번이나 개설되었다. 萬日은 27년 145일이므로 19세기에 세 번이나 개설되었다는 것은 100년 동안 염불소리가 거의 끊이지 않고 건봉사에서 울려 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만일회를 이야기할 때 건봉사 만일회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그래서 그동안 이에 대한 연구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진행되어 왔다.<sup>3)</sup> 먼저 목정배가 「만일염불회의 성립과 의미」라는 논문에서 건봉사 만일회에 대해 언급한 이래, 한보광이 「건봉사의 만일염불결사」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한보광은 논문에서 건봉사의 사적에서부터 만일염불회의 성립 과정과 전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그 후 몇몇 논문에서 건봉사 만일회를 부분적으로 언급하기는 하였으나 별다른 주장은 없었다. 그것은 한보광의 연구가 거의 완결성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을 언급하기 어려웠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조선후기 불교사에 대한 연구가 진척되면서 건봉사 만일회의 성립 배경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질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보광과 한상길은 건봉사 만일회의 성립 배경을 조선후기 사찰계의 유행이라는 맥락에서 파악하고,<sup>4)</sup> 그 직접적인 동기를 『乾

2) 김필동, 『韓國社會組織史研究: 契組織의 構造的 特性和 歷史的 變動』, 一潮閣, 1992; 한상길, 『조선후기 불교와 寺刹契』, 경인문화사, 2006.

3) 건봉사 만일염불회와 관련한 연구 논저로는 다음의 것이 대표적이다. 목정배, 「만일염불회의 성립과 의미」, 『韓國淨土思想研究』, 동국대불교문화연구원, 1985; 한보광, 「건봉사의 만일염불결사」, 『불교학보』 33, 동국대불교문화연구원, 1996; 한보광, 『信仰結社研究』, 如來藏, 2000; 한상길, 앞의 책.

4) 한보광과 한상길의 위의 책.

鳳寺及乾鳳寺末寺史蹟』에 실려 있는 「新創萬日會事蹟日記」에 의거하여 純祖의 만수무강을 기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다. 물론 사찰계의 유행이라는 사회적 현상 속에서 건봉사 만일회가 개설되었고 순조의 만수무강 기원은 만일회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에 만일회가 성립할 수 있었던 불교사적 맥락에서 이야기될 필요가 있다. 또한 근래에 제2차 건봉사 만일회와 관련한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었다. 후술하겠지만, 1822년에 楓溪 賢正에 의해 저술된 『日本漂海錄』의 서문을 鄭允容(1792~1865)이 지었는데, 그 글속에 그동안 알려져 있지 않았던 건봉사 만일회에 관한 내용이 실려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건봉사 만일회의 성립 배경을 불교사적 측면에서 재조명하고, 아울러 새로 발견된 자료를 통해 제2차 건봉사 만일회의 주도자와 시기를 새로 批正해보고자 한다.

## 2. 발징화상 설화와 만일회의 개설 동기

건봉사 제2차 만일회는 신라시대 발징화상의 제1차 만일회를 이어 천 년 만에 새로 개설된 염불결사였다. 건봉사에서 처음 만일염불회를 개최한 것은 신라 경덕왕(742~765) 때라고 한다. 신라 경덕왕 연간에 발징화상이 무리를 모아 萬日을 기약하여 염불하였다는 것이다.<sup>5)</sup> 이 이야기의 원형으로 생각되는 문헌은 『三國遺事』 郁面婢念佛西昇條이다.

5) 『乾鳳寺本末事蹟』, 아세아문화사, p.1.

육면비염불서승조에서는 「鄉傳」·「僧傳」·「徵本傳」을 인용하여 육면이 염불하여 서쪽 하늘로 간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鄉傳」을 인용하여 ‘경덕왕 때에 阿干인 貴珍을 비롯한 수십 명이 萬日을 기약하여 염불하였는데 貴珍의 婢女인 郁面이 주인을 따라 미타사에서 염불하다가 서쪽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였고, 「僧傳」을 인용하여 ‘八珍은 관음보살의 현신으로서 무리 1천명을 모아 도를 닦았는데 그 무리 중의 한 명이 戒를 어겨 축생도에 떨어졌다가 다시 貴珍의 婢女로 태어났다’고 하였다. 그리고 「徵本傳」에 의거하여 ‘이 일은 경덕왕 때가 아니라 애장왕 때의 일’이라고 소개하면서 ‘徵자는 珍인 듯하다’고 하여 「徵本傳」의 원래 제목이 「珍本傳」일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즉, 「徵本傳」의 이야기가 ‘貴珍’ 혹은 ‘八珍’의 이야기를 신고 있다고 본 것이다. 여기서 「정본전」의 이야기가 「향전」이나 「승전」과 같은 내용이고 徵자를 珍자로 본다면, 「향전」·「승전」에 등장하는 ‘貴珍’과 ‘八珍’ 둘 중의 한 명은 ‘貴徵’이나 ‘八徵’으로 표기될 수 있다. 이러한 기록에 근거하여 조선후기 이후 학자들은 ‘八徵’과 ‘發徵’을 같은 인물로 보았다. 육면비염불서승조의 이야기를 ‘發徵’에 대한 옛 기록으로 보았던 것이다.<sup>6)</sup>

그러나 그 견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삼국유사』의 육면비염불서승조에는 건봉사에 대한 언급이 없다. 육면비염불서승조에서는 貴珍의 萬日念佛과 郁面の 念佛西昇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신라시대에 건봉사에서 만일회가 있었다는 최초의 기록은 조선

6) 한보광은 「新羅 高麗代의 萬日念佛結社」(『佛教學報』 31,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1994)에서 ‘八珍’을 ‘發徵’과 동일시하여 「정본전」을 「발징화상전」으로 추정하였다.

후기 澤堂 李植(1584~1647)이 지은 『水城志』에 보인다.<sup>7)</sup> 『수성지』에서 “건봉사에는 발징화상이 무리를 모아 염불하여 영험이 있었던 事跡에 대한 기록이 있다”<sup>8)</sup>라고 하였다. 이 기록으로 볼 때 李植이 『수성지』를 작성할 당시 건봉사에 발징화상에 대한 사적기가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箕城 快善(1693~1764)은 『請擇法報恩文』에서 발징화상이 건봉사에서 31인의 승려와 1800명의 재가자와 함께 염불 수행하여 왕생극락하였다고 하였다.<sup>9)</sup> 또한 蓮潭 有一(1720~1799)은 「蓮池萬日會序」에서 발징화상이 건봉사에 염불회를 개설하여 같은 날 1000명이 왕생하였다고 하였다.<sup>10)</sup> 따라서 조선후기에 발징화상에 대한 이야기가 건봉사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은 실제로 건봉사에서 만일회를 개최하도록 추동하여 제1차 발징화상의 만일회를 계승하는 제2차 만일회가 1801년에 개설되었다. 그리고 이어서 제3차 만일회가 1851년, 제4차 만일회가 1881년, 제5차 만일회가 1908년, 제6차 만일회가 1921년에 조직됨으로써 건봉사는 만일염불회의 聖地가 되었다.

7) 한보광 앞의 논문 참고. 水城은 杆城의 옛 이름이고, 현재의 강원도 고성에 포함되어 있다.

8) 『水城志』(『朝鮮時代 私撰 邑誌』 36, 한국인문과학원, 1990, p.34). “寺有發微和尚聚徒念佛靈應事跡記.”

9) 『請擇法報恩文』(한불전 9, p.650上) 참조. 기성 쾌선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논문이 있다. 김월재, 『霜峰門譜』, 鮮一印刷所, 1922; 김운학, 「念佛還鄉曲」, 『國學資料』 4-5, 장서각, 1975; 고익진, 「請擇法報恩文의 著者と 그 思想」, 『佛敎學報』 17,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1980; 강동균, 「箕城 快善의 淨土思想」, 『石堂論叢』 28, 동아대 석당전통문화연구원, 1999; 현대불교신문사, 『염불환향곡』, 2005; 이종수, 「18세기 기성쾌선의念佛門 연구-念佛門의 禪敎 硏안기」, 『普照思想』 30, 보조사상연구원, 2008.

10) 「蓮池萬日會序」(『蓮潭大師林下錄』, 한불전 10, p.261上). “微和尚繼設會於乾鳳 同千人往生.”

그런데 건봉사 제2차 만일회의 개설 동기는 발징화상 설화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正祖(1776~1800)의 昇遐와도 관련이 있다. 「新創萬日會事蹟日記」에서는 제2차 만일회의 개설 배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1800년 6월 28일, 우리 聖上이신 정조대왕께서 갑자기 초로에 돌아가시니 나라사람들은 마치 부모가 돌아가신 듯 슬퍼했다. … 나는 8월에, 비통한 심정을 품고 괴로워하면서 서울로 가서 因山날에 聖上의 상여를 보고 하늘이 무너지는 끝없는 고통을 달래고자 하였다. … 9월 13일 밤 晦雲에서 꿈을 꾸었다. 길가에 聖上과 春宮이 盛世를 稱頌하는 노래를 짓고 있어서 俯伏하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聖上이 나를 보며 말씀하시기를 “어찌 새로운 임금을 위해서 만세를 부르지 않느냐.”라고 하셨다. … 이틀 밤을 똑같은 꿈을 꾸었다. 실로 神異하였다. … 마음이 기쁘고 자부심이 들었는데 전국의 講匠禪伯들이 모인 자리에서 時事를 논하다가 건봉사 만일회에 대해 말하기에 이르렀다. 대중이 모두 나에게 “… 尊師께서 바다와 산에 맹세하여 舊 만일도량에 新 만일회를 다시 베풀어, 말세의 미혹에 빠진 중생을 건지신다면 어찌 發微和尚 혼자만의 그 옛날 영광이 되겠습니까.”라고 청하였다. … 萬日 삼십년을 기한으로 정하기는 어렵지만 매일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축원하고 아미타불을 만 번씩 염송한다면 삼십년이 지난 후에 나와 법계의 중생들이 모두 삼보의 뗏목을 타고 함께 彼岸의 하늘땅에 오를 것이니, 어찌 이와 같은 경사가 많겠는가.<sup>11)</sup>

11) 「新創萬日會事蹟日記」(『乾鳳寺本末事蹟』, pp.28~30). “聖上正宗大王 遽昇蒼遐 國中

위의 기록에서 보듯이 글의 저자는 제2차 만일회의 직접적인 동기로서, 정조의 장례식에 참가하기 위해 서울로 가다가 꿈에서 정조 임금의 부탁을 받고 純祖(1800~1834)의 만수무강을 위해 만일회를 개설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乾鳳寺及乾鳳寺末寺史蹟』에 따르면 조선전기부터 왕실에서 건봉사를 적극 후원했다고 한다. 세조와 예종이 건봉사를 願堂으로 삼았고, 역대 왕후들이 토지와 여러 물품을 하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sup>12)</sup> 그러나 『조선왕조실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1788년에 군수 李最源이 상주하여 건봉사의 進貢을 혁파한 것뿐이다. 이 기록은 제2차 만일회와도 관련이 있다. 우선 『정조실록』을 살펴보자.

임금이 전주 관관 이최원에게 乾鳳寺 승려에 대한 폐해를 물었다. 건봉사는 간성군에 있는데, 이최원이 그곳 군수를 역임했기 때문이다. 전교하기를, “이 절은 중요함이 여느 절과 다르고 列聖朝의 御筆을 봉안하였으니, 지금 구제하여 소생시키는 일을 잠시도 늦출 수 없다. 그런데 官納과 雜費가 면세 받은 전결에서 생산되는 것에 비하여 10배가 넘다고 하니, 이 말을 듣고서 어찌 그대로 둘 수 있겠는가. 특별히 모두 탕감

如喪考妣 … 余於八月含悲携苦 轉向京師 將於因山之日 望大輿 欲違天崩無涯之通 … 忽於晦雲九月十三日至夜夢 路側 聖上與春宮 作康衢之樂 俯伏而俟 上顧謂曰 蓋爲新聖上呼萬歲 … 兩宵同夢 實爲神異 … 心喜自負 八垓講匠禪伯 多會齋筵 閑論時事 語及於乾鳳寺萬古萬日會之事 衆皆請余曰 … 尊師傾誓海 卓盟山 而重設新萬日會於舊萬日之道場 以濟末運之迷淪 則豈獨使發微 專美於古哉 … 難事限萬日三十年之內 日日祝聖歲之萬歲 日日誦彌陀之萬聲 三十年之外 我與法界生靈 共乘寶筏 咸登彼岸天壤之間 豈多有如是之慶哉.”

12) 『乾鳳寺及乾鳳寺末寺史蹟』에 기록되어 있는 역대 왕실과 관계에서 사실여부는 본 논문의 취지를 벗어나므로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다.

하라. 만일 해당 땅에서 다른 방도로 수탈하는 폐단이 있거든 巡營은 그 사실을 보고하라. 궁납의 폐단이 없어지더라도 官納의 폐단이 또 생긴다면 바로잡아 개혁한 뜻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므로 道伯이 얼마나 신중히 살피느냐에 달렸을 뿐이다.”<sup>13)</sup>

건봉사는 대대로 왕실로부터 보호받아 왔으므로 세금을 면제하라는 내용이다. 뿐만 아니라 그 지역 수령은 다른 방식으로 수탈하는 세금이 없는지 잘 살피라고까지 하였다. 이렇게 정조로부터 중요하게 여겨졌던 건봉사는 정조가 昇遐하자 왕위를 계승한 순조의 만수무강을 위해 만일염불회를 결성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위에서 살펴본 「新創萬日會事蹟日記」의 저자는 꿈에서 정조의 유지를 받들어 만일회를 개설하게 되었다고 하였지만, 이미 그 이전에 정조와의 인연이 만일회를 개설하게 된 동기로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 3. 三門修學과 만일회의 불교사적 배경

그러면 19세기에 건봉사에서 만일회가 개설된 불교사적 배경은 무엇일까? 발징화상 이야기로부터 천 년의 세월이 지난 시점에 건봉사에서 만일회가 개설된 배경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 것일까? 禪 일

13) 『正祖實錄』 12년 무신 8월 1일. “上問乾鳳寺僧弊於全州判官李最源 寺在杆城郡 最源曾經郡守故也 教曰 本寺所重自別 既奉列聖朝御筆 及今蘇採 不可暫緩 所謂官納及雜費比之免稅結 土地所出 不啻十倍 既聞之後 豈可仍置 特並蕩減 該宮萬一有別岐侵漁之弊 巡營以聞 官納之弊雖祛 官納之弊又出 則烏在其釐革之意 此則在道伯察飭之如何耳.”

변도의 경향을 가졌을 것으로 평가되어 온 조선후기 불교계에서 세 차례나 만일회가 지속되었던 배경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일까?

18세기 불교계를 살펴나가다 보면, 사찰계의 유행이라고 하는 특징적 현상을 만나게 된다. 그 이전에 없었던 현상으로서 사찰에서 甲契, 佛糧契, 燈燭契, 門徒契, 念佛契, 地藏契, 七星契 등의 여러契가 결성되었다. 이 가운데 전거가 확인되는 염불계는 임란 이전에 3건, 18세기에 3건, 19세기에 19건 등이 조사되었다.<sup>14)</sup> 염불계는 ‘염불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의契’라는 뜻으로 ‘念佛結社’라고 할 수 있으며, ‘만일회’ ‘미타회’ ‘서방도량’ 등으로 조직된 용례가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건봉사 만일회 역시 18세기 이후 늘어나는 염불계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sup>15)</sup>

또한 18세기 염불과 관련된 현상으로 염불가사의 유행도 빼놓을 수 없다. 극락왕생을 노래한 「서왕가」 「인과문」 「회심가」가 『念佛普勸文』에 수록되어 널리 유행했던 것으로 보이고,<sup>16)</sup> 枕肱懸辯(1616~1684)의 「귀산곡」과 18세기 말에 활동했던 智瑩(생몰년 미상)의 「수선곡」 「전설인과곡」 등의 염불가사도 발견된다.<sup>17)</sup> 이리

한 염불가사들이 오늘날 대중가요처럼 널리 퍼져서 불렀다고 본다면, 염불가사의 유행을 만일회 개설의 시대적 배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염불계와 염불가사의 유행이 조선후기 三門修學의 범위에서 이야기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三門修學은 淸虛休靜(1520~1604)과 그의 제자인 鞭羊彦機(1581~1644)에 의해 제창된 것으로 徑截門·圓頓門·念佛門의 수학을 말하는데, 17~18세기에 불교계의 새로운 수행으로 정착하였다.<sup>18)</sup> 당시 전국 승려들은 淸虛休靜과 浮休善修(1543~1615)의 범백을 자처하였고, 그 가운데 편양 언기 문파가 가장 번성하였다. 즉 편양 언기가 승려로서 걸어가야 할 길로 제창한 삼문수학이 그 문도들에 의해 보편적인 수행방법이 되었고 전국의 승려들에게 확산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18세기 염불계와 염불가사의 유행은 삼문수학이라는 틀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경절문은 禪宗 고유의 조사선으로서 임제선종을 대표하는 수행법이고, 원돈문은 화엄교학으로서 18세기 강원마다 대강백을 배출하였다. 그리고 염불문은 출가자와 재가자가 수행과 신앙을 매개로 만나는 소통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런데 이 삼문은 처음에 선종이라는 틀 속에서 이야기되었기 때문에 禪에서 교학과 염불을 수용한 수행법이었다. 원돈문이나 염불문은 경절

14) 한상길 앞의 책 ; 이종수, 「조선후기 불교의 수행체계 연구-三門修學을 중심으로」, 동국대 박사논문, 2010, pp.169~174 참조.

15) 이에 대해서는 연구는 건봉사 만일회를 연구한 신학들에 의해 충분히 밝혀졌다.

16) 『염불보권문』은 1704년에 처음 간행된 이후 80여 년 동안 여섯 번에 걸쳐 覆刻과 改刻 등이 이루어졌다. 이 책의 서지적 내용은 金英培의 「念佛普勸文의 解題」(『念佛普勸文의 國語學的 研究』, 東岳語文學會, 1996)에 자세히 다루어져 있다.

17) 枕肱懸辯의 불교가사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은상, 「枕肱大師와 그의 歌辭」, 『國語 國文學 研究』 6, 청구대, 1962 ; 김풍기, 「枕肱 歌辭의 隱逸의 性格과 그 意味」, 『韓國歌辭文學研究』, 태학사, 1995 ; 김종진, 「침평(枕肱)의 <태평곡>에 대한 현실주의적 독법」, 『韓國詩歌研究』 19, 한국시가학회, 2005. 그리고 智瑩의 불교가사에 대해서는 임기중의 『불교가사 연구』(동국대출판부, 2001) pp.90-93

과 김기중의 「지형(智瑩)의 불교가사 연구」(『韓國文學研究』 24,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01)가 참고할 만하다.

18) 경절문이란 간화선 참구의 길을 제시한 문이고, 원돈문은 대체로 敎學을 의미하였는데 화엄학이 그 중심에 있었으며, 염불문은 염불 수행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제시한 문이다. 이종수의 박사논문 참조.

문에 대해 보조적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18세기를 거치면서 삼문은 동등한 수행법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1769년에 간행된 振虛捌關(생몰년 미상)의 『三門直指』에서는 ‘삼문은 깨달음의 길에 들어가는 관문으로서 우열의 차이가 없다’<sup>19)</sup>고 선언하였던 것이다. 원돈문과 염불문이 더 이상 禪에 예속된 수행법이 아니라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독자적인 수행법으로 인식했던 사람들이 나타났던 것이다.

이러한 변화 양상에서 주목되는 사람이 바로 箕城快善(1693~1764)이다. 그는 『請擇法報恩文』과 『念佛還鄉曲』을 저술하여 염불문이 가장 수승한 수행문이라고 강조하였던 것이다. 그는 『청택법보은문』에서 발징화상의 만일염불 설화를 소개하여 염불하면 극락왕생한다고 설명하고, 또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선교 두 문의 말을 떠나고 말을 의지하여 증득해 들어가는 모습은 중생의 근기가 다르기 때문이니 그 문 또한 매우 다른 것이다. 그러나 염불의 한 문은 선교 양종과 범부와 성인,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함께 들어가는 문이고, 비단 한 시기에만 증득해 들어가는 문이 아니기 때문에 초발심으로부터 십지에 이르기까지 염불을 떠나지 않으니, 곧 삼세제불 인지법행의 으뜸이다.<sup>20)</sup>

禪門(경절문)과 教門(원돈문)은 근기의 차이에 따라 나뉜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지만, 염불문은 모든 근기에 다 통하는 一味의 가르침이라고 하였다. 경절문이나 원돈문보다도 염불문이 더 수승한 문이라고 하였다.<sup>21)</sup> 염불문에서 경절문과 원돈문을 오히려 포섭하려 하였던 것이다.

기성 쾌선의 이러한 관점은 진허 팔관이 『삼문직지』에서 염불문을 설명하는 대목에서도 드러난다.

문는다. “염불이 열등하기 때문에 삼문 중에서 처음에 있는 것인가?” 답한다. “『비로자나품소』에 ‘염불삼매는 보살의 아버지’라고 하였으므로 가장 먼저 그것을 밝히는 것이다. 그리고 십지에서 염불을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삼문이 서로 앞서거나 뒤서거나 할 수 있는 것이요 말의 우열로써 차등을 두어서는 안된다.”<sup>22)</sup>

진허 팔관은 염불문이 삼문 가운데 가장 열등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삼문에 차이가 없다고 선언함으로써 염불문의 독자성을 인정하였다. 이는 기성 쾌선이 염불문이 가장 수승하다고 말한 것보다는 뒤로 물러선 것이지만 삼문의 동등성을 강조하였던 점에서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다시 말해, 당시 삼문을 경절문 중심으로 이해하려는 전통적 견해와 각각의 문마다 수승함을

19) 「三門直指序」(『三門直指』, 한불전 10, p.138下). “郭門雖異 會要則同 … 萬里同風 三門一室.”

20) 『請擇法報恩文』(한불전 9, p.646中~下). “禪教二門 離言依言 得入行相 由其機別 門亦迥異 然念佛一門 則禪教兩宗 及凡聖善惡通入之門也 非但一期得入之門 從初發心 乃至十地 不離念佛 卽三世諸佛因地法行之宗也.”

21) 고익진, 「請擇法報恩文의 著者と 그 思想」, 『佛敎學報』 17, 1980 ; 이종수, 「18세기 기성쾌선의 念佛門 연구-念佛門의 禪敎 硏안기」, 『普照思想』 30, 2008.

22) 「念佛門」(『三門直指』, 한불전 10, p.139中). “問 念佛劣故 三門中在初耶 答 毘盧品疏云 念佛三昧者 菩薩之父 故首明之 乃至十地 不離念佛 然則三門互爲先後 不可以言勝劣爲次.”



강조하려는 새로운 경향 속에서 진혀 팔관이 삼문의 동등성을 강조 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처럼 18세기 후반 염불문을 중시했던 일파에서 신라시대 발징 화상 설화를 강조하면서 염불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었고, 또 염불 계와 염불가사의 유행으로 염불신앙이 확산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여 19세기 초에 건봉사에서 발징화상의 만일 회를 계승하는 제2차 만일회를 개설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제2 차 만일회의 직접적인 동기가 정조의 昇遐와 그에 이은 순조의 등극 이라고 하더라도 불교사적 맥락에서는 삼문수학이라는 시대적 조류 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 4. 만일회의 주도자와 시기 再批正

건봉사 제2차 만일회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 「新創萬日會 事蹟日記」와 「萬日院重修記」가 『乾鳳寺及乾鳳寺末寺史蹟』에 실려 있다.<sup>23)</sup> 「신창만일회사적일기」는 만일회가 개설되고 난 직후에 작 성된 것으로 생각되지만 작성자와 작성연대가 불분명하다. 앞서 살 펴보았듯이, 그 글을 통해 만일회의 발생동기를 알 수 있고 글의 작 성자가 만일회를 주도한 사람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만일원 중수기」는 1822년 9월 9일에 서울에 사는 醇溪居士가 지은 것으로

23) 이 외의 기록은 1878년 4월에 일어난 화재로 모두 소실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碩昫의 주도로 만일원이 중수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sup>24)</sup> 그래서 건 봉사 만일회는 碩昫이 개설하였던 것으로 여겨져 왔다.<sup>25)</sup> 실제로 후 대에 만들어진 사적기에는 모두 만일회의 주도자를 碩昫으로 기록 하고 있다. 또한 위의 두 기록에서 만일회 결성 시기에 대해 특별한 언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대의 기록에는 1802년에 만일회가 개설되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만일회의 주도자가 작성한 것으로 생각되는 「신창만일회사적일기」의 작자를 碩昫으로 보고, 만일회의 결성 연대도 1802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일까?

그런데 최근에 필자가 楓溪賢正(생몰년 미상)의 『日本漂海錄』을 보다가 그 서문에 건봉사 만일회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서 살펴본 결과 제2차 만일회의 주도자에 대해 재고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 달하였다. 『일본표해록』은 현정이 해남 大菴寺 승려 玩虎倫佑(1758 ~1826)의 요청으로 경주 佛石山에 가서 수 개 월에 걸쳐 千佛을 조 성하고 배에 실어 해남 대둔사를 향해 가다가 태풍을 만나 일본에 표류한 이야기를 적고 있는 글이다.<sup>26)</sup> 그런데 그 책의 서문에 건봉 사 만일회에 대한 이야기를 실고 있다.<sup>27)</sup> 그 서문은 1863년에 鄭允容 (1792~1865)이 썼는데, 그가 1828년 관동 布政司에 갔을 때 건봉사 만일회에 대해 들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24) 「萬日院重修記」(『乾鳳寺本末事蹟』, p.46). “乾鳳寺萬日院者 上人碩旻之所修也 旻與 其徒 精修戒律 爲是院.”

25) 한보광, 「乾鳳寺의 萬日念佛結社」, 『信仰結社研究』, 如來藏, 2000, p.230.

26) 정성일, 「해남대둔사 승려의 일본표착과 체험」, 『한일관계사연구』, 한일관계사학회, 2009.

27) 『일본표해록』 서문은 한불전 제10책에 실려 있으며 「記楓溪禪師賢正漂海錄序」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으나 본고에서는 편의적으로 「일본표해록서문」으로 기록함을 밝혀 둔다.

무자년(1828) 여름에 나는 관동 布政司에 갔는데, 어떤 늙은 승려가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였다. 사촌 형인 순찰사 經山 相公 鄭元容(1783~1873)이 소개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은 간성 건봉사 승려 錫鬻 일세. 그 무리 중에 福仁이라는 승려가 있는데 정성이 다른 사람들보다 매우 훌륭하다네. 경신년(1800)에 임금께서 등극하실 때에 사찰 승려가 서로 말하기를 ‘성상께서는 어린 나이에 아버이를 잃고 단신이 되셨으니 우리가 萬日齋로써 성상의 만수무강을 축원합니다.’라고 하며 복인을 주지로 삼고 아침저녁으로 경을 읽으며 산문 밖으로 나가지 않은 지 30년이라네. 석민이 산문을 출입하며 募緣하여 만일재의 공양을 돕고 있어서 하나같이 모두 칭찬한다네.”라고 하였다. 나는 그를 오게 하여 그에게 2만전을 주며 “그대를 도움으로써 이러한 공업을 이루고자 하니, 내 이를 위해 옷깃을 여미고 찬탄하겠소.”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그에 대해 자세하게 묻자 석민이 말하기를 “복인스님은 지금 85세이지만 아직 정정하시어 병이 없고, 모범이 되지만 文飾이 적으며, 계를 지키기가 매우 엄격하고, 북과 경쇠를 두드리며 큰 소리로 염불을 하는데 밤낮으로 게으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발원을 한 때로부터 지금 9천 700여 일이 되어 마침내 내년 3월 며칠에 기약한 날을 다 채웁니다.”라고 하였다. 다음해 봄에 들으니, 복인선사의 공덕이 원만하게 끝났다고 한다.<sup>28)</sup>

28) 「일본표해록서문」(『日本漂海錄』, 한불전 10, p.710下~711上). “戊子夏 余遊關東之布政司 有老衲 膜拜于前 巡察使從兄經山相公 指示曰 此扞城乾鳳寺僧錫鬻也 其徒有福仁者 誠力絕異 歲庚申聖上嗣位 寺僧相與語曰 聖上冲年孤單 吾徒請以萬日齋 以祝萬壽 相福仁爲住持 晨夕誦經 足不出山門者 三十年 鬻出入募緣 以助齋供 一路共稱 吾使之來也 以錢二萬畀之曰 以資汝成就此功業也 余爲之歛衽稱嘆 倂問其詳 鬻曰 仁師今八十五歲 猶矍鑠無病 模而少文 持戒甚嚴 敲磬念誦 書宵靡懈 今九千七百餘日 既發此願 庶遂此願 明年三月幾日 爲滿萬之期也 翌年春 聞師功德果圓.”

위의 글에서 보듯이, 福仁이 발원하여 건봉사 만일회가 성립되었다고 하였으므로 만일회의 주도자가 福仁임을 알게 해 준다. 그리고 福仁의 만일회를 지원하기 위해 募緣했던 인물이 바로 錫鬻이라고 하였다. 이 내용에서 『乾鳳寺本末事蹟』의 古記錄에 실려 있는 「신창만일회사적일기」의 작자를 福仁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福仁이 주지가 되어 만일회를 주도했다고 하였으므로 「신창만일회사적일기」를 작성한 사람은 아마도 福仁일 것이다. 福仁이 58세에 정조의 昇遐 소식을 듣고 서울로 달려갔고, 그 도중에 꿈에서 정조를 만나 만일회를 개설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의 인용문은 건봉사 사적기에서 碩鬻을 만일회의 주도자로 기록한 것과 배치된다. 과연 복인과 석민 둘 중에 누가 만일회의 주도자일까?

1822년에 작성된 「만일원중수기」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碩鬻은 위의 인용문에 보이는 錫鬻과 동일인물로 생각된다. 이러한 가정을 믿기로 한다면, 위의 인용문 내용으로 볼 때 석민은 만일회의 주도자가 아니라 만일회를 후원했던 緣化僧이 된다. 만일 석민이 연화승에 불과했다면 후대에 석민을 만일회의 주도자로 기록한 것은 오류가 되는 셈이다. 우선 「만일원중수기」의 글을 살펴보자.

건봉사 만일원은 석민상인이 중수한 것이다. 석민과 그의 무리는 계율을 精修하여 이 만일원을 세웠다. 날마다 부처님 명호를 염송하면서 우리 임금을 위해 만수무강을 위해 축원한 지 7천 9백여일이 되었다. … 석민은 그 행동에 믿음이 있어서 시설한 것들이 영구토록 이루어질 것이고 사람들과 교유함이 오랏수록 더욱 돈독할 것이다. 서울에 와서 나에게 글을 써달라고 요구하였다. 나는 불교의 말을 잘 모르지만 마음에

느낀 바로써 이와 같이 생각을 적었다. 만일원을 중수한 날짜는 석민이 쓴 글이 있어서 여기에 덧붙이지 않는다.<sup>29)</sup>

위의 글을 통해 석민이 만일원 중수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던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원래 건봉사 만일원은 1801년 6월에 처음 완성되었었는데<sup>30)</sup> 1822년에 이르러 석민에 의해 중수되었던 것 같다. 그러므로 석민을 1822년 만일원 중수의 주도자로 보는 데는 아무런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기록만으로 만일회의 주도자를 석민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만일원중수기」는 만일원 중수에 대해 적은 것이지 만일회에 대해서 적은 글은 아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이 글의 작자인 醇溪居士는 석민의 글을 보고 중수기를 써준 인물일 뿐이다. 그러므로 만일원 중수의 주도자와 만일회의 주도자를 동일 인물로 볼 만한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 따라서 만일회의 주도자, 즉 「신창만일회사적기」의 작자는 석민이라기보다 복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본표해록서문」에서는 만일회가 완료된 시점을 1829년 3월이라고 하였다. 이로부터 1만 일(약 27년 5개월)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만일회의 개설 시기가 1801년 10월경이 된다. 이 시기는 지금까지 만일회의 개설시기를 1802년으로 본 것과 다소 차이가 있다. 그리고 1822년 9월 9일에 작성된 「만일원중수기」에서 “매일 염불하

며 우리 성상의 만수무강을 기원한 지 지금 7900여일이 되었다.”<sup>31)</sup>라고 하였는데, 이를 계산해보면 만일회의 개설 시기는 1800년 12월경이 된다. 이렇게 서로 다른 기록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일까?

지금까지 만일회 개설 시기를 1802년으로 보아 온 것은 그 근거를 찾기 어렵다. 다만 사적기 연보에 1802년이라고 한 것을 연구자들이 그대로 따랐던 것 같다. 만일회 개설 시기와 관련해서는 만일회를 기록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기록인 「신창만일회사적일기」와 「만일원중수기」, 그리고 「일본표해록서문」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창만일회사적일기」에서는 만일원이 1801년 6월에 완성되었다고 하였을 뿐 만일회의 개설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글의 저자가 1801년 8월 北漢寺 國齋 때에 참석했다가 霽峰스님과 함께 돌아오는 길에, 霽峰이 쓴 ‘만일회의 古蹟<sup>32)</sup>’을 왕실에 전달하자 왕실로부터 순조의 만수무강을 위한 백일불공을 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하사품을 받아 백일기도를 하였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을 뿐이다.<sup>33)</sup>

29) 「萬日院重修記」(『乾鳳寺本末事蹟』, pp.46~47). “乾鳳寺萬日院者 上人碩旻之所修也 旻與其徒 精修戒律 爲是院 蓋日誦佛號 爲吾聖上 視無疆之壽 今七千九百有餘日矣 … 碩旻動而有信 所施設無不久遠而成之 與人遊久而彌篤 來京師 求余文爲記 余未諳浮屠語 因其所感於心者而原其意如此 若院之重修月日 旻自有記 此不疊云.”

30) 「新創萬日會事蹟日記」(『乾鳳寺本末事蹟』, pp.28~30).

31) 「萬日院重修記」(『乾鳳寺本末事蹟』, p.46). “蓋日誦佛號 爲吾聖上視無疆之壽 今七千九百有餘日矣.”

32) 「新創萬日會事蹟日記」에서 ‘萬日會之古蹟’이라고 한 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아마도 신라시대에 발경화상이 건봉사에서 만일회를 개설하였던 이야기를 기록하였을 것이다. 글에서 古蹟이라고 하였으므로 이때 이미 만일회가 개설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33) 「新創萬日會事蹟日記」(『乾鳳寺本末事蹟』, p.29). “八月北漢寺國齋時 嶺南影波法老傳 乘駟至京師 參齋席 乃承命之行也 余亦參席 齋後因迎歸老傳 而又與霽峰和尚 共還之日 霽峰師記萬日會之古蹟 達乎九重 九重雖深 微誠有感 自殿中 賜青銅二百 黃金六 束使之成寶幘 而紅緞帳二件 紅緞陽傘一件 注黃燭百雙 以資奉佛之具 又賜二百緞網 貨資供聖 又賜百五十緞網 限百日 爲新上祝壽 影波霽峰蓮坡三和尚 又與衆多禪和 開百日供佛之場 諸大衆誦彌陀 祝聖壽之萬歲.”

그러므로 제2차 만일회 개설 시기에 대해서는 「신창만일회사적일기」의 1801년 8월 백일불공에 대한 기록, 「만일원중수기」의 1800년 12월의 기록, 「일본표해록서문」의 1801년 10월의 기록을 통해 유추할 수밖에 없다. 이 세 가지 기록 가운데 가장 빠른 시기로 비정하고 있는 「만일원중수기」의 1800년 12월은 만일원의 착공 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글의 중심 주제가 만일원이고 보면 7900일의 기준이 만일회의 개설 시점이라기보다 만일원의 착공 시점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신창만일회사적일기」에서 ‘먼저 講法하는 堂을 세우고 나서 염불하는 사람을 맞이하는 것이 좋겠다<sup>34)</sup>고 하고나서, ‘1801년 6월에 만일원이 완공되었다<sup>35)</sup>고 한 내용으로 볼 때 만일회는 만일원이 완성된 이후에 시작되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즉, 1800년 12월에 만일원의 설립을 서원하고 1801년 6월에 완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정조의 昇遐가 1800년 6월이므로 昇年祭도 끝나지 않은 시점에 순조의 만수무강을 위해 만일회를 개설했다고 보기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보면 만일회 개설 시기는 「신창만일회사적일기」의 1801년 8월과 「일본표해록서문」의 1801년 10월 중에서 비정할 수 있다. 「신창만일회사적일기」의 기록에 의거한다면 순조를 위한 백일불공과 더불어 만일회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일본표해록서문」에

34) 「新創萬日會事蹟日記」(『乾鳳寺本末事蹟』, p.29). “可先建講法之堂 而次邀念佛之人也”

35) 「新創萬日會事蹟日記」(『乾鳳寺本末事蹟』, p.29). “六月十八日到寺 巋然新閣 有若落空”

의거한다면 백일불공 도중에 만일회를 개설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신창만일회사적일기」에서 8월의 國齋라고 한 것은 추석을 맞이하여 행해진 의식이었을 것이다. 북한사에서 열린 추석불공에 참석한 복인이 제봉과 함께 만일회를 개설할 목적으로 건봉사의 ‘만일회 고적’을 왕실에 전달하였고, 이로써 왕실의 지원을 받아 순조의 백일기도를 하게 되면서 만일회를 개설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만 그 개설 시기를 8월로 볼 것인지 10월로 볼 것인지는 여전히 문제가 남는다. 추석으로부터 100일을 계산하면 11월 25일경이 되는데 10월은 그 중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만일회 개설 시기를 10월로 본다면 백일불공 도중에 만일회가 개설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두 시기 중 어느 쪽이 더 타당한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어느 쪽이건 1802년에 개설되었다는 견해보다는 설득력이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만일회 개설 시기에 대해 1802년 설을 부정하고 1801년 8월~10월로 비정하고자 한다.

## 5. 맺음말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기록에 의거해 볼 때, 건봉사에서 발징화상의 만일회가 결성되었다는 믿음은 조선시대에 형성되었다. 그러나 만일회에 대해 최초로 언급하고 있는 『삼국유사』의 「육면비염불서승조」의 내용이 발징화상에 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건봉사에서 만일회가 결성되었다고 볼만한 근거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봉사에서 만일회가 개설

되었다는 믿음이 전승되어 왔고, 이러한 믿음이 건봉사에서 만일회를 개설하도록 추동하였다.

건봉사 만일회의 직접적인 동기는 정조가 昇遐한 이후 순조의 만수무강을 기원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 시대적 배경은 17세기 이후 정착되어 온 경절문·원돈문·염불문의 三門修學과 무관하지 않다. 삼문수학은 청허 휴정과 편양 언기에 의해 제창되어 18세기에는 전국적으로 정착되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삼문은 원래 경절문을 중심으로 원돈문과 염불문이 그 보조적 위치에 있었으나 18세기 후반이 되면서 원돈문과 염불문의 독자성이 강조되었다. 그래서 삼문의 우열을 부정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염불문은 염불계와 염불가사의 유행으로 민중의 염불신앙과 결합하여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그러므로 건봉사 제2차 만일회의 불교사적 배경으로서 18세기 삼문수학의 정착을 이야기할 수 있다.

지금까지 작자와 작성연대 미상의 「신창만일회사적일기」와 1822년에 醇溪居士가 작성한 「만일원중수기」의 기록에 의거하여 건봉사 만일회의 주도자를 碩暎으로 지목하고 만일회 개설 시기를 1802년으로 비정해왔다. 이는 『건봉사급건봉사본말사적』에 실려 있는 대부분의 글에서 그와 같이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신창만일회사적일기」와 「만일원중수기」를 살펴보다도 석민이 1802년에 만일회를 결성했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 오히려 「만일원중수기」의 기록에서는 순조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염불을 시작한 시기를 1800년 12월로 보고 있다.

최근에 필자가 1863년에 鄭允睿이 쓴 「일본표해록서문」에서 건봉사 만일회 관련 기록을 발견하고 검토한 결과 건봉사 만일회의 주도

자로서 「신창만일회사적일기」의 저자는 福仁이라는 승려이고 만일회의 결성시기도 1802년이 아니라 1801년 8월~10월경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정윤용은 만일회의 주도자가 ‘복인’이고 만일회의 緣化僧이 ‘석민’이라고 밝히고 있고, 만일회가 종료된 시점을 1829년 3월이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아마도 1878년 4월의 화재로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어 그 이전의 기록을 잃어버린 이후, 후대의 어느 시점에 만일회의 주도자를 석민으로 잘못 기록하게 되었던 것 같다.

## 참고문헌

### 1. 원전류

- 『正祖實錄』
- 『請擇法報恩文』, 한불전 9
- 『三門直指』, 한불전 10
- 『蓮潭大師林下錄』, 한불전 10
- 『日本漂海錄』, 한불전 10
- 『水城志』, 『朝鮮時代 私撰 邑誌』 36, 한국인문과학원, 1990.
- 한국문헌연구소 편, 『乾鳳寺本末事蹟』, 아세아문화사, 1977.
- 김월재, 『霜峰門譜』, 鮮一印刷所, 1922.

### 2. 단행본(가나다순)

- 김필동, 『韓國社會組織史研究: 契組織의 構造의 特性과 歷史的 變動』, 一潮閣, 1992.
- 임기중, 『불교가사 연구』, 동국대출판부, 2001.
- 한보광, 『信仰結社研究』, 서울: 如來藏, 2000.
- 한상길, 『조선후기 불교와 寺刹契』, 경인문화사, 2006.
- 현대불교신문사, 『염불환향곡』, 2005.

### 3. 논문(가나다순)

- 강동균, 「箕城 快善의 淨土思想」, 『石堂論叢』 28, 동아대 석당전통문화연구원, 1999.
- 고익진, 「請擇法報恩文의 著者와 그 思想」, 『佛敎學報』 17, 동국대 불교문

화연구원, 1980.

- 김기중, 「지형(智瑩)의 불교가사 연구」, 『韓國文學研究』 24,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01.
- 김영배, 「念佛普勸文의 解題」, 『念佛普勸文의 國語學的 研究』, 東岳語文學會, 1996.
- 김운학, 「念佛還鄉曲」, 『國學資料』 4-5, 장서각, 1975.
- 김종진, 「침핑(枕肱)의 <태평곡>에 대한 현실주의적 독법」, 『韓國詩歌研究』 19, 한국시가학회, 2005.
- 김풍기, 「枕肱 歌辭의 隱逸的 性格과 그 意味」, 『韓國歌辭文學研究』, 태학사, 1995.
- 목정배, 「만일염불회의 성립과 의미」, 『韓國淨土思想研究』, 동국대불교문화연구원, 1985.
- 이은상, 「枕肱大師와 그의 歌辭」, 『國語 國文學 研究』 6, 청구대, 1962.
- 이종수, 「18세기 기성쾌선의念佛門 연구-念佛門의 禪敎 껴안기」, 『普照思想』 30, 보조사상연구원, 2008.  
「조선후기 불교의 수행체계 연구-三門修學을 중심으로」, 동국대 박사논문, 2010.
- 정성일, 「해남대둔사 승려의 일본표착과 체험」, 『한일관계사연구』, 한일관계사학회, 2009.
- 한보광, 「건봉사의 만일염불결사」, 『佛敎學報』 33, 동국대불교문화연구원, 1996.  
「新羅 高麗代의 萬日念佛結社」, 『佛敎學報』 31,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1994.

# A Reappraisal of the Second Manilhoe in Keonbongsa Temple

Lee, Jong-su  
Dongguk University

The Manilhoe(萬日念佛會, a ceremony which involves chanting Buddha for ten thousand days) in Keonbongsa has been referred to a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19th century chanting Buddhism owing to the fact that the ceremony was held an impressive three times over the course of the century. The ceremony descended from the first Manilhoe held by master Baljing in the Three Kingdoms period. According to the two oldest records of the second Manilhoe—Sinchangmanilhoesajeogilgi(新創萬日會事蹟日記) of an unknown authorship and period, and male devotee Sungye(醇溪居士)’s Manirwonjungungi(萬日院重修記) from 1822—researchers have assumed that the leader of the ceremony was Seokmin(碩旻) and that the ceremony was held in 1802. However a recently discovered record of the ceremony, Ilbonpyohaerokseomun(日本漂海錄序文) written by Jeong Yoonyong(鄭允容) in 1863, contradicts the older records. According to the newer record,

the leader of the ceremony was Bokin(福仁) and it was held sometime between August and October of 1801.

While the immediate purpose of the second Manilhoe has been supposed as being for the longevity of King Sunjo, researchers have not focussed very much on the Buddhist background surrounding the ceremony. This study suggests the “Three Gates” Discipline(三門修學), which consisted of Gyeongjeolmun(徑截門), Wondonmun(圓頓門), and Yeombulmun(念佛門), formed the background of the second Manilhoe.

It is believed that the “Three Gates” Discipline proposed by Cheongheohyujeong(淸虛休靜) and Pyeonnyang-eongi(鞭羊彦機) was popularized in the 18th century. So it is possible to deduce that the Manilhoe was held during Yeombulmun was being introduced throughout the kingdom.

## Key Word

Keonbongsa, Manilhoe, master Baljing, Three Gates Discipline,  
*Ilbonpyohaerok*

투고일자 2010.3.28 | 심사일자 2010.4.11 | 게재확정일자 2010.4.14